

두십낭 고사의 다시쓰기*

김소정**

【목 차】

1. 들어가며
2. 송무징의 원작: 「사랑을 저버린 사람에 관한 전기(負情儂傳)」
3. 풍몽룡의 다시쓰기: 「두십낭이 분노하여 백보상을 던지다(杜十娘怒沉百寶箱)」
4. 임어당의 다시쓰기: 『미스 두(Miss Tu)』
5. 나오며

【초록】

본고는 두십낭 고사가 명나라 말기 송무징의 전기 「負情儂傳」에서 기원하여 풍몽룡의 백화단편소설 「두십낭이 분노하여 백보상을 던지다(杜十娘怒沉百寶箱)」를 거쳐 임어당의 『미스 두(Miss Tu)』로 변천한 과정을 고찰하였다. 송무징은 유가의 열녀 형상에 입각하여 역사가의 객관적 태도와 역사서술방식을 차용해서 두십낭을 이상적으로 묘사했다. 「負情儂傳」이 두십낭의 원망을 위로하기 위한 서사였다면, 풍몽룡은 변치않는 사랑을 실천한 두십낭을 숭양하고 독자를 교화하기 위해 다시 썼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선행과 악행에 따른 인과응보의 결말을 첨가함으로써 교훈성을 강화했다. 임어당의 『미스 두』는 뛰어난 노래재능을 사회에서 인정받고, 평등한 사랑을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근대적 여성으로 두십낭을 형상화했다. 그리고 남자주인공을 동정하고 변호하면서, 이들의 애정비극은 남성의 배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낭만적 애정의 속성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리하여 두십낭 고사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찬사와 그 위험성을 알리는 근대적 애정소설로 진화하였다.

【키워드】 명대, 두십낭 고사, 송무징, 「부정농전」, 풍몽룡, 백화단편소설, 「두십낭이 분노하여 백보상을 던지다」, 임어당, 『미스 두』, 다시쓰기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2036591)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jsz@pusan.ac.kr)

1. 들어가며

문인과 기녀의 사랑을 소재로 한 두십낭(杜十娘)고사는 명나라 말기 송무징(宋懋澄; 1569-1620?)이 문언으로 쓴 전기(傳奇)에서 기원하여 통속문학가 풍몽룡(馮夢龍; 1574-1646)에 의해 백화소설로 개작되어 『경세통언(警世通言)』에 수록되면서 중국에서 크게 인기를 모았다. 그리고 이후로 중국에서는 물론 한국 및 일본, 그리고 영미유럽에도 번역되어 널리 읽힐 정도로 유명한 중국고전소설이 되었다. 지금까지 두십낭 고사에 대한 국내 학계의 선행연구는 풍몽룡의 「두십낭이 분노하여 백보상을 던지다(杜十娘怒沉百寶箱)」(이하 「두십낭」)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주제사상과 등장인물, 비극성 등 작품분석에 치중한 연구와 한국으로의 전파와 영향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¹⁾ 본고는 통시적 관점에서 두십낭 고사의 다시쓰기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시야를 확장하고자 한다. 두십낭 고사가 명나라 말기의 소설가 송무징에 의해 처음 출현한 이래 풍몽룡과 임어당(林語堂; 1895-1976)의 손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 발전되었는지 그 변천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텍스트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없었던 중국전통사회의 주변부에 놓인 기녀가 남성작가에 의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비교 탐색할 것이다. 아울러 두십낭을 포함한 주요 등장인물, 서사구조, 묘사기법, 주제사상 등에 있어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송무징의 원작:

「사랑을 저버린 사람에 관한 전기(負情儂傳)」

명나라 말기 강남지방의 문인 송무징은 만력년간에 간행한 자신의 문집 『구약집(九籀集)·문집(文集)』 제5권(卷)에 「사랑을 저버린 사람에 관한 전(負情儂傳)」(이하 「負情」)을 수록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송무징은 송강(松江) 화정(華亭, 지금의 상해송강현) 사람으로 역대로 시문에 뛰어난 문인을 많이 배출한 명망 있는 가문에서 출생했다. 자가 유청(幼淸)이고 호는 아원(雅源)으로, 어려서부터 무협을 좋아하여 병법을 익혔고 시문에도 능했다. 30세가 넘어서 태학생이 되었고, 1612년 그의 나이 44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향시에 합격하여 거인(舉人) 자격을 얻었는데 안타깝게도 끝내 진사(進士)시험에는 급제하지 못했다. 명나라 말기의 유명한 시인 진자룡(陳子龍)과 오위업(吳偉業)은 그의 사후에 『송유청선생전(宋幼淸先生傳)』, 『송유

1) 작품분석은 김홍겸(「두십낭의 비극으로 살펴본 기생의 장한」, 『동양학』, 46, 2009), 유미경(「두십낭의 비극 연구 - 두십낭에 새겨진 화폐 표상」, 『중국어문학논집』, 86, 2014), 김소정(「『삼언』의 애정관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1) 등의 연구가 있고, 한국으로의 전파와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허순우(「근대 초기 신문에 게재된 두십낭(杜十娘) 고사(故事) 관련 서사 연구」, 『한국고전연구』, 36, 2017)의 연구가 있다. 이밖에, 4종의 「負情儂傳」 문언텍스트를 비교분석한 이등연(「두십낭 고사의 서사 변천 연구(1) - 문언 텍스트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중어중문학회 2014학술대회자료집』, 2014.11)의 연구가 있다.

청묘지명(宋幼清墓志銘)』을 써서 그의 넋을 기리고 공적을 기술했다. 또 그는 강남일대에서 서적을 많이 보유한 장서가로도 유명했고, 시문에 뛰어난 명말 시인 송경여(宋敬輿), 송징여(宋徵輿), 송징벽(宋徵璧)의 부친으로서도 알려져 있다. 『구약집』은 개인문집으로는 최초로 소설을 수록한 의미 있는 저작으로, 송무정은 소설을 각별히 좋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집에 수록된 문언단편소설 「오중효자(吳中孝子)」, 「진주적삼(珠衫)」, 「유동산(劉東山)」 등은 모두 『삼언(三言)』 『이박(二拍)』의 유명한 고사 「포악한 며느리가 과부 시어머니를 간계를 써서 제거하고, 효자가 노모를 되살리다」, 「장흥가가 진주적삼을 다시 찾다」, 「유동산은 순성문에서 무예숨씨를 뿔내고, 18형은 시골 주점에 기이한 종적을 남기다」의 기원이 된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이다.²⁾

「負情」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는 가가(歌妓) 두십낭과 문인 이생(李生)의 사랑, 두십낭과 기생어멈의 갈등과 해소, 신안 상인과의 갈등, 두십낭의 백보상 투하와 자살, 송무정의 평어와 후기로 구성되어 있다. 문인과 기녀의 사랑은 명말 소설가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는 사건이었으며, 그로 인해 소설의 소재로 즐겨 채택되었다. 송무정에게 있어 여성은 천지정령의 기운이 모여 만들어진 맑고 깨끗한 존재였다.³⁾ 그리하여 『구약집』에 수록된 다수의 애정시에서 여성은 절개와 지조를 면려하는 정신적 역량으로 형상화되었다.⁴⁾ “기루에서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정신이 영민하지 않아서이다. 기녀가 진실로 충신임을 알아야 한다”⁵⁾라는 시구에서 드러나듯, 기녀의 진실한 사랑은 황제에 대한 충절의 윤리와 동급으로 인식되었다. 송무정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실의한 자신의 불만의 정서를 두십낭에게 기탁했다. 두십낭은 군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불운한 처지에 놓인 충성스런 신하의 곤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연민에 빠진 남성문인을 버림받은 여성에게 비유하곤 했던 중국 서정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제목 바로 밑에 달려 있는 주(注)는 송무정의 저술 의도를 짐작케 하는데 도움을 준다. “왕중옹이 「오한곡(懊恨曲)」을 부르길, 사랑을 저버린 사람을 항상 원망했는데 낭군께서는 지금 과연 어떠하신지요.”⁶⁾라는 주가 붙어 있는데, 여기서 왕중옹이 불렀다는 「오한곡」은 『남제서(南齊書)』의 「왕경칙전(王敬則傳)」과 『남사(南史)』의 「왕경칙전」에도 언급되어 있다. 왕경칙(王敬則, 435-498)은 남조 제나라 사람으로 고제 황제를 도와 제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이었다. 그런데 제나라 5대 황제인 명제 때 이르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왜냐하면 명제는 선대 황제들을 살해하고 즉위했기 때문에 고제의 옛 충신들은 언제 참수당할 지 모르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명제는 왕경칙의 아들 중옹(仲雍)이 거문고를 잘 타는 것을 알고는 초미금(焦尾琴)을 주어 연주하게 했는데, 이 때 중옹은 개국공신의

2) 「悍婦計去孀姑，孝子生還老母」는 『성세항언(醒世恒言)』 제3권, 「蔣興哥重會珍珠衫」은 『유세명언(喻世名言)』 제5권, 「劉東山誇技順城門，十八兄奇蹤村酒肆」는 『초각박안경기(初刻拍案驚奇)』 제3권에 수록되어 있다.

3) “泰降丕升，天地精靈之氣，不鍾於男子而鍾於婦人。” 宋懋澄，「美人盟言」，「九籀集·續集」卷九，『續修四庫全書』1374·集部·別集類，上海古籍出版社，2002，p.140.

4) 朱麗霞；羅時進，「晚明詩人宋懋澄的情愛觀及其創作」，『河南教育學院學報』2005年第6期，p.87 참조.

5) “蕩盡娼家心不悔，乃知女妓真忠臣。” 宋懋澄，「官妓好痛積金也」，「九籀集·詩集」卷一，같은 책，p.50.

6) “王仲雍「懊恨曲」曰，常恨負情儂，郎今果行許。” 宋懋澄，「負情儂傳」，「九籀集·文集」卷五，같은 책，p.216.

충심을 저버린 명제를 풍자하는 내용의 「오한곡」을 불러 명제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내용의 노래를 제목 바로 아래에 적어 놓음으로써 송무정은 이 작품의 핵심어가 원망임을 암시했다. 그는 이 고사를 써서 두십낭에 대한 연민과 위로를 널리 불러일으켜 그녀의 원혼을 위로하고자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저버리는 행동을 경계하게 하려는 교훈적 의도는 애당초 없었다.

이러한 저술의도로 인하여 이생의 배신에 대한 두십낭의 분노와 신안상인에 대한 적개심은 작품 속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묘사되었다. 두십낭이 강물에 투신하기 직전, 신안상인과 이생을 향한 신랄한 비난은 다음과 같다.

<인용1>

여랑(女郎)은 이생을 옆으로 밀고 신안사람에게 욕하며 말하길, “당신은 제 노래를 듣고 욕정이 일어 피꼬리가 지저귀듯 혀를 놀려댔습니다. 신령스런 하늘을 살피지 않고 밧줄을 자르고 병을 떨어뜨려 깨뜨려서, 첩으로 하여금 뼈가 피로 붉게 물들고 피는 푸른 벽옥이 되게 하였습니다. 제가 자질이 약하여 칼을 뽑아내어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재물을 탐하여 애워싸서 억지로 구하려한 것은, 광견이 바람처럼 빨리 달려가 뼈다귀를 빼앗으려고 서로 다투는 것과 무엇이릅니까? 첩이 죽어 혼령이 되면 마땅히 신명께 고하여 며칠 안에 당신의 얼굴을 앓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첩은 별을 감추어 품고 그림자만 보여주었습니다. 자매들에게 부탁하여 진기한 물건을 감추게 해서, 장차 이(李) 낭군께서 돌아가 부모님을 뵙는데 경제적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제 낭군께서 저를 보살피는 일을 끝마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낭군의 눈에 눈동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첩은 이 낭군 때문에 눈이 시려 눈물도 말라버렸고, 혼도 거의 흩어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일이 가까스로 이루어지려 했는데, 마주잡은 손을 저버리고 갑자기 생황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는 길에 이슬이 많을까 두려워하여 삶은 고기의 즙보다 가벼이 여겨 하루아침에 내동댕이쳤습니다. 낭군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더니, 여기 남은 기름을 탐내어 옆질러진 물을 담으려하였습니다. 첩이 무슨 낮으로 처음으로 돌이키려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이번 생은 끝났습니다. 동쪽 바다가 말라 모래가 흰히 드러나고, 서쪽 화산(華山)의 높이만큼 기장이 자라난다 해도, 이 뒤엎킨 원한은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⁷⁾

두십낭은 간교한 계략을 써서 여색을 탐하는 신안 상인을 광견에 비유할 정도로 경멸했다. 신안 상인은 돈의 힘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고 사랑을 함부로 짓밟는 인물로 그를 향한 두십낭의 분노는 칼을 빼내어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울 정도로 극에 달했다. 그리하여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고 두십낭은 저주했다. 또 이생의 용렬함과 나약함, 그리고 배신으로 인한 원한 역시 끝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녀가 보석상자를 열어 진기한 보석들을 보여준 뒤에 강물에 던진 행위는 자신의 용의주도한 계획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했던 이생의 용렬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극적인 장치였다. 안타깝게도 이생은 그녀를 평범한 기녀

7) 女郎推生於側，而啐罵新安人曰：“汝聞歌蕩情，遂代鶯弄舌，不顧神天，剪綆落瓶，使妾將骨殷血碧。自恨弱質，不能抽刀向儉。乃復貪財，強求繫抱。何異狂犬方事趨風，更欲爭骨。妾死有靈，當訴之明神，不日奪汝人面。且妾藏辰詒影，托諸姊妹蘊藏奇貨，將資李郎歸見父母也。今畜我不卒而故暴揚之者，欲人知李郎匣中無瞳耳。妾為李郎，澀眼幾枯，翕魂屢散，事幸粗成，不念攜手而俟溺笙簧，畏行多露，一朝捐棄，輕於殘汁。顧乃焚此殘膏，欲收覆水，妾更何顏而聽其挽鼻！今生已矣！東海沙明，西華黍壘，此恨糾纏，寧有盡耶！”宋懋澄，같은 책，p.219.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속신비용을 스스로 준비하는 경제적 능력과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정신적 역량을 겸비한 두십낭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생에게 있어 기녀 두십낭은 고향으로 가는 배 위에서 노래로써 자신의 고적함을 달래어주는 가기에 불과했다. 때문에 이생은 사랑의 일시적 감정에만 이끌릴 뿐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았다. 두십낭의 곤경은 바로 이러한 이생을 선택한데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생의 사랑의 맹세와 진실성, 그리고 그의 고충에 대해 서술자는 거의 기술하지 않았다. 두십낭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녀를 배신한 이생에게는 발언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고 그는 악인으로만 묘사되었다.

송무정은 두십낭의 비극적 사랑이야기를 서술한 「負情」을 역사인물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전(傳)’부분에 수록하였다. 이는 그가 이 이야기를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믿었음을 시사한다. 만일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소설장르에 해당하는 ‘패(稗)’부분에 수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실제 일어난 사건과 실존한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역사가의 서술태도를 취했고, 역대 중국역사가의 객관적 태도와 전고의 방법을 계승했다.

등장인물의 묘사에서 송무정은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을 자제하고 객관적인 필치로 묘사하였다. 먼저 기생어머니의 경우, 기녀에 대한 정리(情理)는 조금도 없으며 그저 금전의 이익만 중시하는 속물의 전형으로 묘사되었다. 기생어머니의 특징은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기생어머니는 이생을 내쫓을 요량으로 300냥의 속신비용을 마련해올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생이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제안을 해서 이생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두십낭으로 하여금 부유한 풍류객들을 접대하도록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생이 돈을 마련해오자 깜짝 놀란 기생어머니는 약속을 번복하려 했다. 북경에서 제일가는 일류 가기를 순순히 내어주는 것은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었었던 것이다. 하지만 두십낭이 자결하겠다고 항거하자,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될까봐 기생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300냥을 받고 두십낭을 보내준다. 이 사건을 통해 두십낭의 인생과 사랑에 대해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금전적 이익만 추구하는 비정한 인물임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두십낭이 걸치고 있던 옷과 장신구는 본래 두십낭의 것이 아니므로 벗어두고 떠나라는 대사에서 기생어머니의 배금(拜金)의식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두 번째로, 신안 상인의 특징은 대사의 활용을 통해 드러났다. 교활한 신안 상인은 이생으로 하여금 두십낭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두십낭은 겉으로는 이생을 사랑하여 남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숨겨둔 정인(情人)이 있어 언젠가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그는 이생의 의구심을 부추겼다. 그리고 두십낭과의 사랑을 포기하고 천 냥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아버지와 화해하라고 재촉했고, 기녀의 미답지 못한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효를 선택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고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교활함은 두십낭의 반어적인 풍자를 통해서도 부각되었다. 이생으로부터 신안 상인의 간계를 전해들은 두십낭은 “누가 당신을 위해 이러한 계책을 꾸몄습니까? 정말로 대단한 영웅이로군요.”라면서 신안 상인을 영웅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세 번째로, 유순하고 순진한 성품의 이생에 대한 묘사는 기생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속신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기생어머니가 그를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홀대하고 화를 내는데도 그는 정성스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고, 속신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친지들이 자신의 딱한

사정을 듣고 순순히 돈을 빌려줄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송무정은 역사서에서 포폄(褒貶)의 기능을 담당하는 평어의 방식을 취하여 두십낭에 대한 평어를 작품 말미에 달았다. “아! 이 여량은 자정(子政)⁸⁾이 칭송한 열녀에 비한다 해도 무슨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비록 규방의 훌륭한 여인이라도 그 정조가 어찌 더할 수 있겠습니까!”⁹⁾ 이처럼 송무정은 두십낭을 열녀로 격상시켜 그녀의 정조를 칭송하였다. 또 역사서에서 자주 활용된 전고도 가져왔다. 두십낭의 대사 가운데 ‘첩으로 하여금 뼈가 피로 붉게 물들고 피는 푸른 벽옥이 되게 하였다’는 주나라의 현신 장홍(荄弘)의 고사에서 나온 전고이다. 『장자(莊子)』 「외물(外物)」에 따르면, 주나라 경왕(敬王)의 대부였던 장홍은 자신의 충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결했는데 이후 3년 뒤 그의 피는 푸른 벽옥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처럼 송무정은 장홍의 전고를 활용하여 두십낭을 충간하다가 죽은 비운의 충신에 비유했다. 이밖에, 『시경(詩經)』에 나오는 구절을 많이 활용했다. 「패풍(邶風)」에 수록된 버림받은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는 「일월(日月)」의 시구 ‘(남편이) 나를 보살피는 것을 끝내지 않고(畜我不卒)’를 두십낭의 대사로 활용하여 이생의 사랑이 길지 않았음을 가리켰다. 「북풍(北風)」에서 ‘맞잡은 손(攜手)’, 「소남(召南)」의 「행로(行露)」에서 ‘가는 길에 이슬이 많을까 두려워하여(畏行多露)’ 등도 인용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역사가가 결말부분에 후기를 쓴 방식을 모방하여 송무정은 본문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충하였다. 후기에서 송무정은 이 고사를 쓰기 시작한 시기와 완성하게 된 경위, 그리고 완성한 뒤에 겪은 기이한 사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인용2>

송유정은 말한다: 나는 경자년 가을에 그 사건을 친구에게서 들었다. 세모에 한가하여 붓을 들어 그 사건을 서술했다. ‘화장을 마치고 나니 날이 벌써 밝았다’까지 쓰고 나니 밤이 깊어지려 했고,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다.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음색을 지닌 사람이 꿈에 나타나 나에게 말했다. “제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근래에 다행히도 저승의 관리께서 가엽게 여기시어 첩으로 하여금 바람과 파도를 관장하고 인간의 화복에 간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만일 낭군께서 첩의 전기를 쓰신다면 첩은 낭군으로 하여금 병들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 과연 그러했다. 수 십일이 지나고나니 차도가 있었다. 포기하고 상자에 던져두었다. 정미년,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상자에 담긴 원고를 살피다가 그 원고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고는 차마 매몰되게 할 수 없어서 급히 붓을 들어 그것을 완성했다. 다만 두려운 것은 이것이 또다시 재앙을 가져와 나로 하여금 다시 두 손으로 배를 움켜잡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미 완성한 종이 말미에 기이한 사건을 기록하겠다. 다시 여랑에게 말씀을 전하길, “전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이후에 과주를 건너갈 때 행여나 거센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 해치지 마십시오. 만일 양해해주시지 않는다면 강을 건너간 뒤에 다시 쓰겠습니다. 어찌 붓을 꺾고 맹인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때는 정미년 가을 7월 2일, 경자년으로부터 대략 8년이 되었다. 배를 타고 위하를 건너던 길이었는데 창주에서 약 200여리 떨어진 곳이었다. 며칠 뒤에 여자 하나 노도(露桃)가 갑자기 강물에 빠져 숨졌다.¹⁰⁾

8) 자정은 『열녀전』을 편찬한 한나라 유향(劉向, B.C.77-6년)의 자(字)이다.

9) “噫! 若女郎, 亦何愧子政所稱烈女哉! 雖深閨之秀, 其貞奚以加焉!” 宋懋澄, 앞의 책, p.219.

10) “宋幼清曰: 餘自庚子秋聞其事於友人. 歲暮多暇, 援筆敘事. 至「妝畢而天已就曙矣」, 時夜將分, 困憊就寢, 夢被髮而其音婦人者謂餘曰: ‘妾自恨不識人, 羞令人間知有此事. 近幸冥司見憐, 令妾稍司風波, 間豫

이상의 ‘송유청은 말한다’ 부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먼저, 송무정은 경자년 즉 만력28년(1600년) 그의 나이 32세 겨울에 「負情」의 전반부를 쓰기 시작했다. 32세 때 송무정은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북경에 갔었는데, 아마도 그 때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미년 즉 만력35년(1607) 그의 나이 39세에 경향운하의 뱃길을 이용하여 남쪽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¹¹⁾ 그리고 『구약집·문집』제9권(卷) ‘제문’에 수록된 「물에 빠진 하녀를 위해 쓴 제문(祭女奴墮水文)」을 보면, 만력35년 7월5일에 북경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위하(衛河)를 건너가던 배에서 하녀가 물에 빠져 죽어서 슬픔을 가눌 길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¹²⁾ 하녀 노도가 강물에 빠져 죽은 사건은 두십낭의 전기를 쓴대 대한 징벌이라고 송무정은 여겼다. 작중의 주인공과 작가 사이에 발생한 기이한 사건으로 인해 이 작품의 실제성은 훨씬 강화되고 있다.

원혼이 된 두십낭은 이생을 잘못 본 자신의 실수를 통탄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지만, 송무정은 그녀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썼다. 강남의 부유한 자제들이 일시적 사랑에 빠져 쾌락에 탐닉하는 명나라 말기의 풍조 속에서 가장 경박해야 할 기녀가 오히려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 자결하는 두십낭 이야기를 통해 송무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를 통렬하게 풍자했다.

3. 풍몽룡의 다시쓰기:

「두십낭이 분노하여 백보상을 던지다(杜十娘怒沉百寶箱)」

강소성(江蘇省) 소주(蘇州) 오현(吳縣) 출신 풍몽룡은 송무정의 「負情」을 백화단편소설 형식에 맞추어 다시 써서 제목을 ‘두십낭이 분노하여 백보상을 던지다(杜十娘怒沉百寶箱)’로 고쳐 『경세통언(警世通言)』(金陵兼善堂刻本, 1624년)에 수록하였다. 풍몽룡 역시 송무정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못한 문인으로 강남이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의 나이 36세(만력38년, 1610년)에서 55세(숭정2년, 1629년)까지 약 20년 동안 통속문학의 창작과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제목에서 송무정은 남자주인공에 대한 비난적인 어조를 부각시켰던데 반해, 풍몽룡은 여자주인공과 그녀의 극적인 행동을 부각시킴으로써 독자들의 이목을 두십낭에 집중시켰다. 그리고 풍몽룡은 등장인물의 이름을 통해 그들의 특징을 암시했다. 두십낭의 이름을 ‘嫩’라고 함으로써 동음어 ‘美’를 암시했고, 이생의 이름을 ‘甲’이라고 함으로써 동음어 ‘假’의 ‘가짜’라는 뜻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신안상인의 이름을 ‘富’라고 지음

人間禍福。若郎君為妾傳奇，妾將使君病作。’明日，果然。幾十日而間。因棄置筐中。丁未，攜家南歸。舟中檢箚稿，見此事尚存，不忍湮沒，急捉筆足之，惟恐其復崇，使我更捧腹也。既書之紙尾，以紀其異；復寄語女郎：‘傳已成矣，它日過瓜州，幸勿作惡風波相虐。倘不見諒，渡江後必當復作。寧肯折筆同盲人乎？’時丁未秋七月二日，去庚子蓋八年矣。舟行衛河道中，拒滄州約百餘裏。不數日，而女奴露桃忽墮河死。”宋懋澄， 앞의 책， pp.219-220.

11) 徐朔方，「宋懋澄年譜(續)」，『明清小說研究』，1997年02期，pp.178-179.

12) 宋懋澄，「祭女奴墮水文」，「九籀集·文集」卷九，같은 책，p.261.

으로써 그의 부유한 경제력을 암시했다. 두십냥을 중심으로 지닌 실의한 문인에 비유한 송무정의 비유법에 대해 풍몽룡은 기본적으로 찬동했으나, 개작 과정에서 남녀간의 사랑과 심리 묘사를 더욱 강화하고 교훈성을 삽입함으로써 흥미진진하고 교훈적인 애정고사로 탈바꿈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세상을 일깨우고 경계시키고자 했던 『삼언』의 편찬의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화본소설의 고정된 형식 즉 입화(入話)와 정화(正話)의 분리, 개장시(開場詩), 수장시(收場詩) 그리고 시사(詩詞)의 빈번한 활용 등에 맞추어 문언단편소설 「負情」을 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의 세밀화, 새로운 인물형상의 창조, 교훈성의 첨가 등으로 인해 편폭이 상당히 늘어났다. 아래에서 풍몽룡이 새롭게 첨가하고 변경한 부분을 고찰하여 다시쓰기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입화 고사에서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만력20년(1592년)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발생한 시점을 고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자 조선은 명나라 황제에게 출병을 급히 요청했다. 이로 인해 명나라는 군량미 부족사태가 발생했고, 돈을 내고 국자감에 입학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이갑은 절강소흥부(浙江紹興府) 출신으로 이포정의 장남으로, 이 때 신설된 제도를 이용하여 북경 국자감의 태학생이 된다. 풍몽룡은 입화의 지면을 빌려 절강 출신 이갑이 어떻게 북경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기술했다.

둘째, 두십냥과 이갑이 사랑의 맹세를 하는 대목을 새로이 첨가했다. 「負情」에서는 두 사람이 사랑의 맹세를 하는 과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負情」에서 두십냥이 이생을 따라 종양(從良)을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 이생의 진실한 사랑에 감복해서가 아니라 기생어머니 이생을 내쫓으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생의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해보는 단계가 두십냥에게는 필요했다. 그래서 두십냥은 속신비용 300냥을 구해오라고 요구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 속에서도 백보상의 존재를 감추었다. 이에 반해 「두십냥」에서는 ‘바다처럼 깊고 산처럼 높은 맹세를 하였고 각자 다른 마음은 없었다.(海誓山盟, 各無他志)’라고 함으로써 두 사람 간의 굳은 사랑의 맹세를 첨가했다. 그런데 이는 두십냥의 형상화에 있어서 오히려 오점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사랑을 맹세한 이갑의 진실성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이갑을 시험했기 때문이다. 이갑이 속신비용 300냥을 구해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 돈을 구해오라고 내보냈다. 또 백보상의 존재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기루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무일푼이 된 이갑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내내 경비문제로 울상이었고 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 고뇌했지만, 두십냥은 당장 급한 돈만 내어줄 뿐 백보상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굳은 사랑의 맹세를 첨가함으로써 인해 여협 두십냥의 이미지가 손상을 입게 되리라는 것을 풍몽룡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이갑의 심리와 그가 처한 곤경에 대한 묘사에 상당한 편폭을 할애했다. 속신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이갑의 노력과 각박한 세상인심을 부각시켰다. 10일 안에 속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지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한 이갑은 면목이 없어서 두십냥을 만나러가지 못했다.¹³⁾ 그리고 두십냥이 뱃삯과 식비를 내어주었을

13) 「負情」에서는 “이생은 한 달이 지나서야 빈손으로 (두십냥을) 만나러 왔다.(生因循經月, 空手來見)”라고 단순하게 서술함으로써 이갑의 심리 묘사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때에도,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자신은 타향에 떠돌다가 묻힐 곳도 없는 신세가 되었을 것이라며 두십낭의 사랑과 덕은 흰머리가 되도록 잊지 않을 것이라고 격하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리고 과주로 내려가는 배에서도 이갑은 자신을 따라나선 두십낭에게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러한 일련의 이갑에 대한 묘사는 본성은 착했지만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유약한 인물임을 보여준다. 특히, 신안 상인의 제안에 두십낭이 찬성의 뜻을 보이자 그는 희색을 띤 듯 기쁜 표정을 지었는데 이는 이갑의 단순함과 우둔함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묘사는 이갑을 「負情」에서보다 훨씬 이해 가능한 인물로 변화시켰다. 그의 배신은 악한 본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의지와 미성숙한 판단력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기녀에게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가업을 잊지 못할까봐 분노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해낼 수 없었다. 이갑은 두십낭이 일반 기녀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고 증명해보이려는 노력은 감히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분노 앞에 벌벌 떨기만 했다. 물론 두십낭이 이갑의 부친을 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긴 했으나 그것 역시 이갑의 용기와 적극성을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행될 수 없었다. 이갑이 친지들을 동원하여 두십낭의 사랑을 설득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면 분노가 누그러들 것이며, 그때 가서 두십낭이 부모님을 찾아뵙자는 제안이었지만, 나약한 이갑으로서는 이행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였다.

넷째, 새로운 등장인물을 창조했다. 이갑의 친구 유우춘(柳遇春), 두십낭이 기루에서 생활할 때 절친했던 기녀 사월랑(謝月朗)과 서소소(徐素素) 등이다. 특히 유우춘은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로, 두십낭의 속신비용을 마련할 때 적극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한다.¹⁴⁾ 그리고 유우춘은 작가 풍몽룡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이기도 해서, 그의 입을 통해 두십낭은 변치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중호걸(女中豪傑)’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다섯째, 등장인물의 결말을 새롭게 창조하여 인과응보의 교훈성을 부각시켰다. 「負情」에서는 이갑과 신안 상인은 도망갔다고 간략하게 언급했는데 반해, 「두십낭」에서는 이갑은 두십낭의 자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광질(狂疾)에 걸리게 되었고, 손부는 병석에 드러누워 종일 토록 두십낭의 환영이 내뿜는 욕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숨졌다고 했다. 한편 속신비용을 빌려준 유우춘은 혼령이 된 두십낭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유우춘은 북경에서의 국자감 태학생 기간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주에 잠시 배를 정박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세숫대야를 강물에 빠트려 어부로 하여금 건져 올리게 했더니 뜻밖에도 작은 상자가 딸려 올라왔다. 그 안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진귀한 보석이 가득했다. 그날 밤 유우춘은 꿈에서 두십낭을 만나 그 보석상자가 은혜를 입은 그녀의 보답임을 알게 되었다.

여섯째, 원작의 논리성과 예술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가하거나 변경한 부분도 있다. 두십낭을 팔아서 생긴 1000냥의 출처를 아버지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의 문제에 있어 「負情」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십낭」에서는 북경에서 서당을 열어 글공부를 가르쳐 번 돈이라고 말하라는 손부의 설득장면을 첨가했다. 또 두십낭이 왜 강물에 뛰어들어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단호한 결심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두십낭의 대사를 통해 충분히 설

14) 「負情」에서는 친지들로부터 100냥을 빌려오는 인물은 이생인데 반해, 두십낭에서는 이갑을 대신하여 유우춘이 150냥을 빌려온다.

명하고 있다.

<인용3>

“첩은 화류계에서 수년 동안 남몰래 돈을 모아 본래 종신의 계책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낭군을 만나게 된 뒤로, 산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은 맹세를 하여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북경을 나올 때 일부러 기녀의 자매들에게 부탁하여 선물로 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백보가 들어있었는데, 그 가치가 만금이나 되었습니다. 장차 낭군의 의복을 치장하여 부모님을 뵙도록 하면, 혹여 첩이 마음이 있는 것을 가련히 여기고 아내로 거두어주시어 종신토록 의탁하게 한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낭군의 믿음이 깊지 않아 근거 없는 말에 미혹되어 중도에 포기하고 첩의 한조각 진심을 저버리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자를 열어 보여주는 것은 낭군으로 하여금 그까지 천금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첩의 함에는 욕이 있는데 낭군의 눈에는 눈동자가 없음이 한스럽습니다. 운명이 부진하여 풍진에서 고생하다가 겨우 벗어났는데 또다시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눈과 귀가 있으니 증명해 주십시오, 첩이 낭군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낭군이 스스로 첩을 저버렸음을!”¹⁵⁾

이상의 <인용3> 두십낭의 대사는 「負情」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앞의 <인용1>에서와 같이 복수심에 불타는 원망의 정서는 약화되고, 자신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됨으로 인해 찾아온 허탈감과 배신감이 짙게 베여있다.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고 종양했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죽음밖에 없었음을 암묵적으로 알려준다. 사실, 그녀가 천시 받는 기녀생활을 7년이나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나 언젠간 속신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비록 사치와 쾌락을 쫓는 화류계에 몸담고 있었지만 두십낭은 사랑과 신의 등 숭고한 가치를 갈망했다. 그래서 사랑과 돈 중에서 돈을 택한 이갑을 향해 눈에 눈동자가 없다고 질타하며 해안을 갖추지 못한 그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신적으로 의탁할 곳이 없던 화류계에서 가가스로 벗어났는데 또다시 배신당한 자신의 불운한 신세에 대한 애끓는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두십낭은 당당했다. 왜냐하면 자신은 끝까지 사랑을 지키려했기 때문이었다. 구경꾼들을 향해 자신은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천명하고 바다에 풍덩 빠져든 장면은 마치 정의를 수호하다가 전사한 장군의 마지막 장면이 갖는 장렬한 비장미를 조성한다. 그로 인해 두십낭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구경꾼들은 모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자부심으로 가득 찬 두십낭은 부끄러운 일을 당해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는 「負情」의 두십낭 이미지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일곱째, 원작의 일부를 삭제하고 바꾸어 쓴 부분도 있다. 풍몽룡은 송무정의 후기를 삭제하고 그 대신에 후인들의 평론을 새로이 만들어냈다.

<인용4>

15) “妾風塵數年，私有所積，本爲終身之計。自遇郎君，山盟海誓，白首不渝。前出都之際，假托眾姊妹相贈，箱中韞藏百寶，不下萬金。將潤色郎君之裝，歸見父母，或憐妾有心，收佐中饋，得終委托，生死無憾。誰知郎君相信不深，惑於浮議，中道見棄，負妾一片真心。今日當眾目之前，開箱出視，使郎君知區區千金，未爲難事。妾櫝中有玉，恨郎眼內無珠。命之不辰，風塵困瘁，甫得脫離，又遭棄捐。今眾人各有耳目，共作證明，妾不負郎君，郎君自負妾耳!” 馮夢龍 編撰，『警世通言』，三民書局，1992，pp.369-370.

후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평론하길, 손부는 미색을 빼앗으려고 천금을 가버이 던졌으니 진실로 선량한 선비가 아니었다. 이갑은 두십낭의 한 조각 고심을 알아보지 못한 변변찮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으니 말할 것이 못된다. 오로지 십낭만이 천고의 여협이라 부를만하다. 어찌 아름다운 배필을 만나 진루(秦樓)의 봉황을 함께 타고 떠나지 못하고, 이공자를 잘못 만나 밝은 구슬과 아름다운 옥이 맹인에게 던져져 은애가 원수로 변하게 되어 만 가지 종류의 은정이 흐르는 물이 되어버렸으니 정말로 애석하구나! 탄식하는 시에서 이르길, 사랑을 해보지 않았으면 맘대로 이야기하지 마시오, 정(情)이라는 글자 하나는 인간에게 깨우침을 요구한다. 만약 정이라는 글자를 철저히 깨우친다면 고아한 사람이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¹⁶⁾

후인들의 입을 빌려, 풍몽룡은 손부와 이갑의 잘못을 지적하고 두십낭을 천고의 여협이라고 칭송하였다. 사랑의 깊은 의미를 깨우쳐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고아하고 걸출한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두십낭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이를 통해 독서대중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했다. 후인의 평론에서 드러나듯, 풍몽룡의 다시쓰기는 통속소설을 통한 교화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4. 입어당의 다시쓰기: 『미스 두(Miss Tu)』

풍몽룡에 의해 백화단편소설형식으로 개작된 두십낭 고사는 큰 인기를 끌어서 이후 청나라로 오면 희극으로 각색되어 무대에서 공연될 정도였다. 희극으로 각색된 두십낭 고사는 전 반부까지는 동일하게 진행되다가 두십낭이 강물에 투신한 이후의 결말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바뀌었고 이로써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생환과 복수, 화해라는 진부한 모티브의 활용으로 인해 작품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말았다.¹⁷⁾ 한편, 동일한 소설 장르 안에서의 개작은 1950년에 와서야 출현했다. 민국시기에 미국을 오가며 중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작가활동을 했던 입어당이 두십낭 고사를 새롭게 다시 썼다. 그는 ‘미스 두(Miss Tu)’로 제목으로 고쳐, 런던의 윌리엄 하이네만(William Heinemann)출판사에서 출판했다.¹⁸⁾ 『미스

16) “後人評論此事，以爲孫富謀奪美色，輕擲千金，固非良士；李甲不識杜十娘一片苦心，碌碌蠢才，無足道者。獨謂十娘千古女俠，豈不能覓一佳侶，共跨秦樓之鳳，乃錯認李公子，明珠美玉，投於盲人，以致恩變爲仇，萬種恩情，化爲流水，深可惜也！有詩歎云：不會風流莫妄談，單單情字費人參；若將情字能參透，喚作風流也不慚。” 馮夢龍 編撰, 같은 책, p.370.

17) 건륭46년(1781년)에 나온 매창주인(梅窗主人)의 『백보상전기(百寶箱傳奇)』는 생환, 복수, 화해 모티브를 활용하여 후반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다. 강물에 빠진 두십낭은 구조되어 비구니암자로 가게 되고,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던 유우춘이 그녀를 발견하고 소주로 데려간다. 한편 고향으로 가던 이갑은 도적떼를 만나 모든 걸 잃고 소주에서 떠돌다가 유우춘을 만난다. 이후 이갑은 북경으로 가서 과거에 응시했고, 유우춘은 그에게 재능도 빼어나고 미모도 뛰어난 사촌여동생이 있다며 혼인을 주선한다. 동방화축을 밝히는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갑은 그녀가 바로 두십낭이었음을 알게 된다. 두십낭은 하인을 시켜 이갑을 두들겨 패고 이갑은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애원한다. 이리하여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부부가 되었다. 王晶, 「杜十娘故事的傳播研究」, 揚州大學碩士論文, 2008.05, p.21 참조.

18) 『미스 두』는 이후 1951년에 노향(老向)의 『전씨네 마을(全家庄)』과 유악(劉鶚)의 『노잔유기(老殘遊記)』의 부분 번역과 함께 한 권으로 묶여 ‘Widow, Nun and Courtesan’라는 제목으로 뉴욕의 존테이출판사에서 다시 출판되었다.

두』는 중국고전소설의 문화횡단적 다시쓰기 방면에서 개척자적 의미를 갖는다. 사실 이 작품이 출판될 무렵, 영미권 독자에게 두십낭 고사는 생소한 동양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임어당의 개작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서양인번역가에 의해 여러 차례 번역되어 소개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¹⁹⁾ 일찍이 임어당은 1935년 존데이출판사에서 출판한 『나의 조국, 나의 겨레』의 성공 직후 펄 벅 부부의 초청으로 뉴욕에 건너가서 중국전통사상과 문학을 적극적으로 소개하였고, 그 덕분에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로서의 명성을 거머쥌 수 있었다. 오른쪽 책표지를 보면, 통상적으로 제목이 들어가는 상단부분에 제목 대신 작가의 이름이 크게 표기되어 있고 제목은 오히려 하단으로 밀려났다. 이는 임어당의 명성에 편승하여 판매부수를 올리려했던 출판사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미스 두』는 작가의 명성으로 인해, 또 익히 알고 있는 중국고사의 다시쓰기였기 때문에 미국출판계에서 쉽게 주목을 끌 수 있었다.



『Miss Tu』
retold by Lin, Yutang

이 작품에 대해 임어당은 ‘열정으로 인한 비극 고사’라고 소개했다. 이는 그의 개작 의도가 두십낭과 이갑의 낭만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을 부각시키는데 있었음을 나타낸다. 여주인공 미스 두의 적극성과 남자주인공 샤밍(Shia-ming)의 피동성,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기생어멈과 거상 마오싼(Maosan), 사랑의 파멸과 비극적인 결말 등 전체적인 윤곽과 주요 등장인물만 남기고, 새로운 시대와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 임어당은 「두십낭」을 다시 썼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샤밍의 타고난 본성과 곤경에 대해 동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의 애정 비극은 신분상의 차이 혹은 남성의 배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같은 애정 자체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임어당은 낭만적 사랑의 속성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함으로써 근대의 애정소설로 변화시키려 했다. 서사구조, 세부사건, 등장인물, 결말처리 등의 방면에서 「두십낭」이 어떻게 개작되었는지 아래에서 차근차근 기술하도록 하겠다.

먼저, 서사구조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액자구조에다 역시간적 서술이다. 이는 20세기 초기 중국에서 널리 읽힌 프랑스작가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춘희』에서 배워온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1899년 유명한 번역가 임서(林紓;1852-1924)와 왕수창(王壽昌;1864-1926)에 의해 번역되어 ‘파리다화녀유사(巴黎茶花女遺事)’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후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서양학문을 수용하는데 매우 개방적이었던 부친 임지성(林至誠;1855-1922) 목사의 추천으로 임어당도 어린 시절에 읽었다. 서술자가 류위춘(Liu Yuchun)을 만나 미스 두와 샤밍의 비극적 사랑이야기를 전해 듣는 액자구조이며, 류위춘의 회고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가 역시간적으로 서술되고 있다.²⁰⁾ 서술자는 과거에서 19세의 젊은 여인이 강물에 뛰어드는

19) 그 당시 출판된 영어번역본은 모두 3종이 있었다. 사무엘 버치(Samuel Birch)가 1871년에 『불사조(The Phoenix)』에 실은 “보석상자(The Casket of Gems)”, 호웰(E. B. Howell)이 번역한 “기녀(The Courtesan)”(*The Restitution of the Bride and Other Stories from the Chinese*, 1926), 조르주 술리에 드 모랑트(George Soulié de Morant;1878-1955)가 번역한 “치욕을 당한 동방의 소녀(Eastern Shame Girl)”(*Chinese Love Tales: Eastern Shame Girl*, 1929) 등이다.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면서 이 사건에 대해 큰 호기심이 생겼다. 그래서 참극이 발생한 4일 뒤, 서술자는 샤밍 집안의 집사 창(Chang)과 류위춘을 만나 그들로부터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는다. 류위춘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은 공교롭게도 「두십낭」에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²¹⁾

둘째, 세부사건의 변화이다. 대체로 낭만적 애정고사의 발단부분에서 흔히 보이는 남녀주 인공의 우연한 첫 만남과 그로인한 상사병, 뜨거운 사랑에 급속히 빠져드는 일련의 과정이 『미스 두』에서도 차용되었다. 샤밍과 류위춘은 춘절연휴에 북경 근교의 사찰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미스 두 일행과 마주쳤다. 나루터에서, 그리고 사찰 경내에서 연거푸 2번이나 맞닥뜨린 샤밍은 첫눈에 반해 상사병을 앓는다. 국자감학생 신분으로서는 일급 가기에 치러야하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류위춘은 샤밍의 마음을 단념시키는 게 상책이라고 판단하고 만류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미스 두 역시 샤밍의 젊고 준수한 외모, 그리고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묘한 매력에 이끌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부터 샤밍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듯 활기에 넘쳤고, 공부에도 열심이었다. 여기에서 샤밍의 사랑의 질투도 첨가했다. 미스 두는 샤밍과 연인 사이로 발전한 이후에도 계속 다른 손님들을 접대했는데, 이로 인해 샤밍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미스 두는 옷값, 식사비, 보석비 등 사치성 지출을 샤밍에게 짊어지우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였지만, 샤밍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타는 화염과 같은 질투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청춘남녀의 열정적인 사랑을 부각시키는 세부사건의 첨가로 인해 작품의 낭만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 용주절 축제 공연, 첩이 되는 것에 대한 단호한 반대 등을 첨가하여 미스 두의 재능과 자립성, 그리고 평등한 사랑에 대한 요구를 부각시켰다. 용주절 축제 때 미스 두는 관중의 박수갈채 속에서 비파연주에 맞추어 노래 공연을 시작했다. 그녀는 ‘왕소군(王昭君)의 원망’을 불렀는데, 바로 왕소군이 한(漢) 왕실을 떠날 때 절정에 달한 슬픔과 원망의 정서를 담은 노래였다. 이는 미스 두의 결말을 암시하는 복선과도 같은 작용을 했다. 청중을 몰입케 하는 그녀의 노래 솜씨는 가수와 청중이 혼연일체가 되는 훌륭한 공연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장면은 재능을 가진 여성이 사회에서 성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근대사회의 도래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 샤밍 부모님의 반대를 우려한 류위춘이 미스 두에게 첩이 되라고 제안했으나, 미스 두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있어 왜 다른 여자를 정실로 먼저 들인 뒤에 자신은 첩이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화를 내면서 미스 두는 샤밍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샤밍은 속신비용도 마련할 것이며, 아버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낼 것이라고 그녀는 낙관했다.

셋째, 등장인물의 역할변화와 새로운 인물의 창조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류위춘에게서 발견된다. 류위춘은 미스 두의 속신비용을 거상 마오썬에게서 빌림으로써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한데 대해서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린다.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정열적인

20) 액자구조와 역사간적 서술은 임어당이 화본소설 「연옥관음(碾玉觀音)」을 영어로 다시 쓴 「옥관음여신상(The jade goddess)」에서도 차용되었다.

21) 「두십낭」은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송대(宋代) 민간예술에서 기원한 화본소설의 서사방식을 모방하고 있다.

사랑은 본시 죄가 아닌데도 왜 그들은 처벌받아야 했는지 절규했고, 사랑으로 인한 고통은 미스 두보다 샤밍이 더 심했다면서 샤밍을 두둔했다. 샤밍의 충동적인 성향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젊은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라는 너그러운 태도를 취했고, 샤밍은 ‘거대한 열정의 무고한 희생자’일 뿐이라고 변호했다. 나아가 미스 두가 보석상자의 비밀을 샤밍에게 말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류위춘은 따끔하게 지적했다. 미스 두는 강물에 뛰어들기 직전에 밝히길, 그 사실을 샤밍에게 숨긴 이유는 샤밍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류위춘이 보았을 때 미스 두의 그런 행동은 오히려 샤밍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었다. 샤밍은 다정다감하지만 천성적으로 부모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석상자의 비밀을 말하지 않은 것은 결국 샤밍으로 하여금 마오싼의 계약에 넘어가도록 미스 두가 방치한 것과 다름없었다.²²⁾ 샤밍을 동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류위춘은 미스 두도 동정했고 그녀의 비천한 직업의 고충을 잘 이해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여인으로,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랑과 찬사를 한 몸에 받지만 파티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공허만이 남았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살펴줄 단 한사람을 원했다. 이렇게 샤밍과 미스 두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류위춘은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을 옹호하고 도와주는 적극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임어당은 류위춘의 형상화에 있어 감수성이 예민하고 인의(仁義)를 신념으로 삼는 중국지식인의 인도주의 정신을 반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샤밍의 아버지 역시 원작에 비해 훨씬 인자한 인물로 각색되었다. 물론 아들이 미스 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는 반대했지만, 미스 두가 강물에 뛰어 든 뒤 그녀의 진심을 알게 된 후에는 깊이 감동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녀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해 ‘미스 두 기념사당’을 지어주었다.

이밖에, 새로 창조된 인물은 집사 창과 샤밍의 삼촌이었다. 집사 창은 참극이 발생한 이후 종적을 감춘 샤밍의 행방을 찾아다니고, 미스 두의 기념사당을 지을 장소를 물색하고, 기념사당에 안치할 미스 두의 초상화를 그릴 화가를 수소문하고, 서술자와 만나서 이 사건의 경위를 대략적으로 말해주고, 류위춘을 서술자의 집에 데려가 소개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샤밍의 삼촌은 미스 두와 샤밍의 결혼을 파탄으로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 악역으로 등장한다. 그는 과거에 있는 마오싼 회사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던 터라,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마오싼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마오싼은 바로 이 점을 악용하여 그를 압박했고, 그래서 샤밍 삼촌은 샤밍으로 하여금 미스 두를 마오싼에게 넘기도록 종용했다. 조카 샤밍을 향해 바보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힐난했고, 만일 미스 두를 데리고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간다면 분명 쫓겨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마오싼이 천 달러에 미스 두를 사기로 했으니 샤밍이 동의만 하면 이참에 마오싼에게 빌린 600달러도 갚게 된다고 설득하여 사랑을 파멸시켰다.

넷째, 결말처리에 나타난 변화이다. 임어당은 「두십낭」의 후인들의 평론을 없애고 대신 후기를 써넣었다. 놀랍게도, 이러한 결말처리는 서사구조의 모델이 된 『춘희』와 완전히 다르며²³⁾ 오히려 송무징의 「負情」과 매우 닮아있다.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 이 작품의 주인공

22) tr. & ad. by Lin Yutang, *Widow, Nun and Courtesan*, The John Day Company, 1951, p.258-259 참조.

에 얹힌 최근의 사건을 덧붙인 후기는 앞의 <인용2>의 서사방식과 너무나 흡사하다.

<인용5>

이 이야기는 20여 년 전의 이야기이다. 1달 전에 일어난 사건(미스 두 기념사당의 화재—필자주)이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흥미를 되살아나게 했고, 오랫동안 내 마음 속에 있던 이 이야기를 쓰게 만들었다. 지난해 여름, 긴 흰 수염에다 가름하고 창백한 얼굴의 어떤 스님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서 미스 두의 기념 사당에 거주했다. 아무도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 그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그는 책이나 불교 경전을 결코 읽지 않았다. 오로지 사당 안에 있는 미스 두의 초상화만 보살필 뿐이었다. 그는 돈이 생기면 항상 향료를 사는데 사용했다. 그가 마치 숭배의식처럼 초상화 앞의 제단에 놓아 불을 붙여둔 향료 말이다. …… 미친 스님은 미스 두의 젊은 연인일 거라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다. …… 1달 전, 바람이 많이 부는 어느 저녁에 난로의 불뚝이 자고 있던 건초로 옮겨 붙어 불이 나서 잠자던 스님이 죽었고 그의 육신은 제가 되고 말았다. 혹자는 그가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지만 너무나 미쳐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또 혹자는 그가 아마 불을 냈을 것이라고 한다. 아무도 모른다.²⁴⁾

이상에서와 같이, 한 달 전에 발생한 미스 두 사당의 화재로 인해 서술자는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 화재는 가을바람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친 스님이 방화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서술자의 마을에 나타난 미친 스님의 행동에는 확실히 미심쩍은 데가 있었다. 미스 두의 초상화에 키스를 퍼붓고, 제단의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돌보았고, 부서진 초상화를 복원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돈을 전부 쏟아 부었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로 인해 마을에는 그가 샤밍일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하지만 스님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불행하게도, 사당에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여 거기서 자던 스님은 불에 타 사망했다. 미스 두가 강물에 몸을 던진 뒤 실종되었던 샤밍이 거의 20년 만에 미스 두의 사당에 나타나 그곳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결말처리는 확실히 「두십낭」의 인과응보의 교훈적 색채를 완전히 없애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마오썬과 샤밍 삼촌의 결말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는데서 그러한 특징은 더욱 드러난다.

5. 나오며

이상에서 두십낭 고사가 명나라 말기 송무정의 전기 「負情」에서 기원하여 풍몽룡의 백화 단편소설 「두십낭」을 거쳐 임어당의 근대애정소설 『미스 두』로 변천한 과정을 고찰하였다. 송무정은 두십낭의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전해 듣고 그녀의 억울한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작품을 썼다. 그는 유가의 열녀 형상에 입각하여 역사가의 객관적 태도와 역사서술방식을 차용

23) 『춘회』의 결말은 남자주인공 아르망이 서술자에게 파리스교계의 고급 창부 마르그리트와의 사랑을 이야기를 모두 들려준 뒤 마르그리트의 수기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24) tr. & ad. by Lin Yutang, 앞의 책, pp.265-266.

해서 두십낭을 이상적으로 묘사했다. 그는 두십낭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군주를 위해 재능을 펼치고 싶었지만 과거에 낙방해서 실현할 길이 없는 실의한 지식인의 마음을 기탁했다. 특히, 이생의 눈에는 눈동자가 없다고 했던 두십낭의 질타 속에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군주가 없다고 생각했던 실의한 문인들의 불만의 정서가 배여있다. 사랑의 배신을 당한 두십낭의 원망의 정서가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으며, 그녀와 긴장 또는 갈등관계를 이루었던 이생과 신안상인은 한 치의 용서도 허락되지 않는 악인으로 묘사되었다. 원망의 서사 덕분에 두십낭은 죽음으로써 변치 않는 사랑을 실천한 열녀의 명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배신을 당해 억울함을 안고 죽은 두십낭은 이제 여한이 없게 되었다는 동시대 문인들의 평가가 나왔다. 송무징의 조카이자 시인 송존표(宋存標; 1601?—1666)는 말하길, “여자는 죽지 않으면 위협적인 인물이 되지 않고 정에 얽매이지 않으면 진실한 사랑을 가진 인물이 못되니 두십낭에게 있어 또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²⁵⁾ 두십낭은 비록 죽었지만 의롭고 진실한 사랑을 실천한 열녀의 명예를 얻었으니 그녀의 원혼은 위로받았다는 유가지식인의 논평이었다.

송무징의 「負情」이 위로의 서사였다면, 풍몽룡의 「두십낭」은 변함없는 사랑을 실천한 자를 송양하고 독자를 교화하기 위해 다시 쓴 작품이었다. 풍몽룡은 두십낭과 이갑의 심적 고뇌와 곤경 등을 묘사하는데 많은 편폭을 할애하여 그들의 사랑을 묘사하는데 치중했고, 신의를 지킨 당당한 두십낭을 ‘여중호걸(女中豪傑)’, ‘여협(女俠)’이라 부르며 추켜세웠다. 그리고 이갑과 손부에 대한 징벌과 유우춘에 대한 보답을 통해 인과응보의 교훈성을 강화시켰다.

명대의 통속백화소설 「두십낭」은 20세기 중반에 와서 문화혁명적 다시쓰기를 통해 미국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다. 임어당의 『미스 두』는 뛰어난 노래재능을 사회에서 인정받고, 평등한 사랑을 주체적으로 추구하는 근대적 여성으로 두십낭을 형상화했다. 그리고 샤밍을 동정하고 변호하면서, 이들의 애정비극은 샤밍의 배신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낭만적 애정의 속성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두십낭」의 교훈적 색채를 없애고 열녀, 정조, 여협 등의 유가문화의 색채가 짙은 단어를 모두 배제했다. 그리하여 『미스 두』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찬사와 그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근대적 애정소설로 진화하였다. 이렇게 봤을 때,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춘 두십낭 교사의 다시쓰기 가능성은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다.

【참고문헌】

-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續修四庫全書』1374·集部·別集類, 上海古籍出版社, 2002.
 北京圖書館古籍出版編輯組 編,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第65冊 子部·雜家類, 書目文獻出版社, 1988.
 馮夢龍 編撰, 『警世通言』, 三民書局, 1992.
 徐朔方, 「宋懋澄年譜(續)」, 『明清小說研究』2期, 1997.
 王 晶, 「杜十娘故事的傳播研究」, 揚州大學碩士論文, 2008.
 鄭平昆, 「『負情儂傳』“懊恨曲”的出處」, 『文獻』, 1991年第2期.

25) “女不死不俠不癡不情，於十娘又何憾焉！”宋存標 編, 『情種』卷四,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第65冊 子部·雜家類, 書目文獻出版社, 1988.

朱麗霞·羅時進, 「晚明詩人宋懋澄的情愛觀及其創作」, 『河南教育學院學報』, 2005年第6期.

translated and adapted by Lin Yutang, *Widow, Nun and Courtesan: Three Novelettes from the Chinese*, The John Day Company, 1951.

Fang Lu,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images of Chinese women in Lin Yutang's translations, adaptations and rewritings", Ph.D. dissertation, Simon Fraser University, 2008.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明代, 杜十娘故事, 宋懋澄, 「負情儂傳」, 馮夢龍, 白話短篇小說, 「杜十娘怒沉百寶箱」, 林語堂, 『杜娘』, 改寫.		
	영문	Ming Dynasty, The Story of Du-Shiniang, Maocheng Song, " <i>The Faithless Lover</i> ", Menglong Peng, Vernacular Short Story, " <i>Du-Shiniang Sinks Her Jewel Box in Anger</i> ", Yutang Lin, <i>Miss Tu</i> , Rewriting		
<div>Rewriting of the Story of Du-Shiniang</div> <div>Kim, So-Jung</div> <p>This paper examines how the story of Du-shiniang originated from The Faithless Lover by Maocheng Song in the Ming dynasty and was transformed into a vernacular short story, Du-Shiniang Sinks Her Jewel Box in Anger, by Menglong Peng, and then retold by Yutang Lin. Maocheng Song ideally depicts the courtesan Du-shiniang based on the figure of faithful woman with a strong will in confucian culture, Borrowing objective attitudes and historical narrative.</p> <p>The Faithless Lover was a narrative to comfort Du-shiniang’s resentment, and in comparison, Menglong Peng rewrote to praise Du-shiniang for her faith love that embodied in her xia(chivalry) and qing(love) characteristics in the story. and to cultivate and enlighten his readers. In addition, the lessons were reinforced by adding the ending of causal justice according to the good and the evil deeds of the characters.</p> <p><i>Miss Tu</i> retold by Yutang Lin embodied a modern girl who was praised for his outstanding singing talents and longed for equal love. In sympathizing and defending the male protagonist, he stressed that their tragedy was not due to betrayal of the male protagonist, but because of the nature of romantic love affair. Thus, the story of Du-shiniang has evolved into a modern love story that compliments the romantic love affair and announces its danger.</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김소정 / 金素貞 / Kim, So-Jung		
	소 속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Em@il	jsz@pusan.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8월 18일	심 사 일	2019년 08월 26일
	수 정 일	2019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7일